



2026. 6. 15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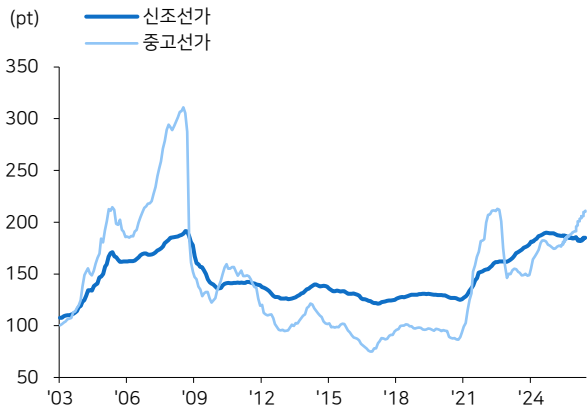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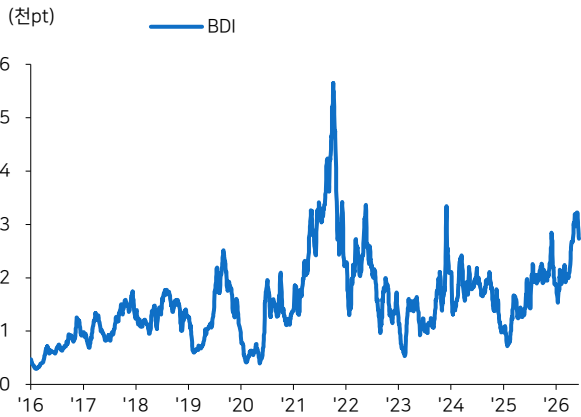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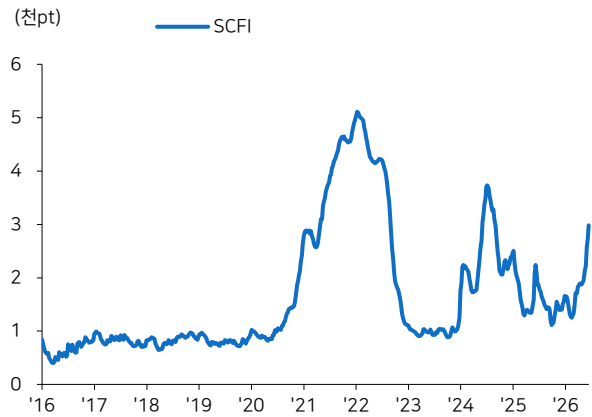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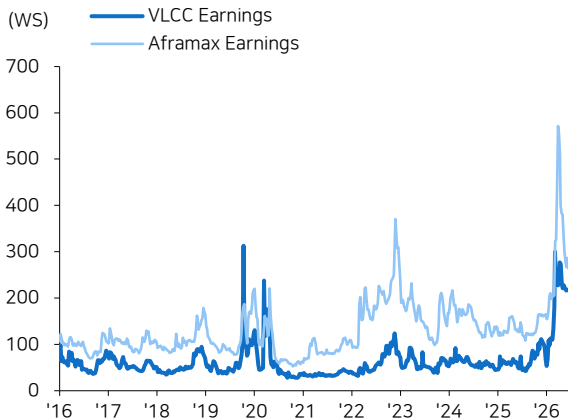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729.0p (-4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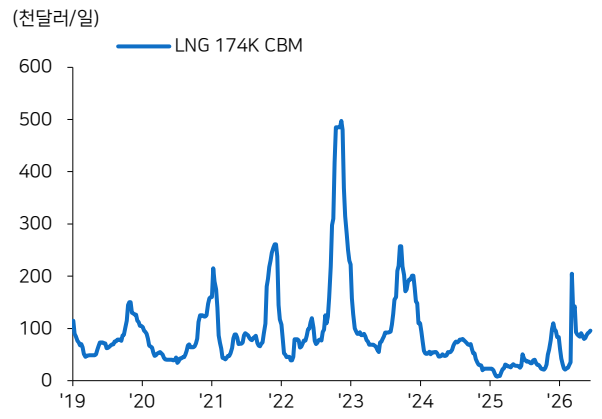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985.2(+258.7 WoW)



VLCC Spot Rate 218.3WS (+1.6p WoW)



LNG Spot 운임 96.0천달러 (+3.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6 명이 하던 일' 로봇이...HD 현대중공업의 자율제조 혁신 (아시아경제) <https://zrr.kr/Udu8qK>

HD현대중공업 중형선사업부가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대응을 위해 AI 및 로봇 기반의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고 보도됨.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이동 경로와 용접 위치를 계산해 작업하는 '자율 이동형 전동레일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 1인당 로봇 운용 대수를 기존 2대에서 최대 6대까지 늘렸으며, 향후 생산성이 153.8% 향상될 전망으로 전해짐. 또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필수 부품인 러그(LUG) 공정에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로봇(AMR)을 도입해 생산·재생·운반 전 공정을 자동화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사용 물량의 95%를 대응하는 등 조선소 전반으로 자율제조 기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HD 한국조선해양, 말콘과 해상풍력 지원선 공동개발...국산화 추진 (아시아경제) <https://zrr.kr/KmjY5r>

HD한국조선해양이 해양 엔지니어링 및 해상 컨설팅 전문기업 말콘과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 선박(SOV)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국산화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 단지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한국형 친환경 SOV를 공동 개발하고 한국선급(KR)으로부터 기본인증(AiP)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추진 시스템, 선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전 세계적인 해상풍력 시장 성장세에 맞춰 중소 조선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자재 국산화 및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KDDX 탈락' 불복 항고...한화오션 선정 변수되나 (한경비즈니스) <https://zrr.kr/Kzc2YQ>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연장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고 보도됨.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은 1.2점의 보안 감점을 그대로 적용받았으며, 기술 점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주었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향후 KDDX 사업 행방의 변수로 부각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입찰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선정하는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짐.

美, SMR 추진 선박 개발 검토...K-조선·원전 기회 (더구루) <https://zrr.kr/Bo87TP>

미국 교통부와 해사청이 상업용 원자력 추진선 개발 및 해상 원자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SMR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정보요청서를 공개했다고 보도됨. 이번 이니셔티브는 단순 기술 검토를 넘어 미국 내 조선소 중심의 표준화·반복 생산이 가능한 상선용 소형모듈원전(SMR)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며, 효율성·경제성·국가안보·확장성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 규제 정비, 보험 및 항만 접근성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해짐. 원자로 모듈과 특수강 등 핵심 기자재의 수요 창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SMR 적용 선박의 개발 및 기본인증(AiP) 단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조선 및 원전 업계가 미국의 기술 검증과 공동 개발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으로 알려짐.

인도 조선용접공 26명 경남 광역형비자로 입국...삼성중공업 투입 (서울신문) <https://zrr.kr/RXsETK>

경상남도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직접 선발한 인도 국적의 조선용접공 26명이 입국해 현장 투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오는 7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생산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이번에 도입된 인력은 E-7-3(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로 지난 4월 현지 기량 검증과 한국어 평가를 통과한 우수 인력들이며, 8주간의 실무 용접·산업안전·한국어 교육을 마친 후 현장에 투입되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전해짐. 경상남도와 경남비자지원센터는 자체 검증을 거친 우수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도입과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려짐.

러시아, 2030년까지 북극항로 운영 쇄빙선 17척으로 확대 (더구루) <https://zrr.kr/xLac2L>

러시아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유가·선박 보험료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물류 경로인 북극항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13일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8척의 원자력 쇄빙선을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7척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3m 두께의 빙하를 뚫을 수 있는 일체형 원자로 RITM-200 탑재 신형 프로젝트 22220 쇄빙선(추코트카,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등)의 추가 건조 및 인도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해짐. 특히 러시아는 북극항로 통과 시 당국의 허가와 쇄빙선 호송을 의무화해 이를 시장 진입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편입을 목표로 오는 2035년까지 항만 및 구조 인프라 확충에 총 18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